

11억인의 나라 인도는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신흥 경제국의 면모를 자랑하는 동시에 세계 2위의 에이즈 대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양면성의 나라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인도의 에이즈 인구는 510만 명(2003년 말 기준).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530만 명)을 추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 글로벌펀드, '인도의 에이즈 인구가 남아공을 추월' 선언

글\_ 정 규 득 · 연합뉴스 뉴델리 특파원

### 인도의 에이즈 현황

UNAIDS는 당시 보고서에서 남아공의 감염인 범위를 450만 명에서 620만 명으로 잡았던 반면 인도는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85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인도 에이즈 인구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

하지만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GFFATM)'는 지난 4월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지부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인도의 에이즈 인구가 남아공을 추월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GFFATM의 리처드 피켄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수치는 남아공이 앞서지만 이 통계는 잘못된 것으로 인도가 세계 1위의 에이즈 국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도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인도의 에이즈 사태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GFFATM의 발표가 있었던 날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에서는 총알에 맞아 죽는 군인보다 에이즈로 죽는 군인이 더 많다"고 경종을 울렸다. 인도 아삼주의 특수부대인 아삼 라이플의 보판데르 싱 중장은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해 8월 인도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33년이면 현재의 전체 감염인보다 더 많은 매년 550만 명의 새로운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세계은행은 '인도의 에이즈' 보고서에서 에이즈 치료와 예방대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33년 인도에서 에이즈는 전체 사망자의 17%, 전염병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에서는 에이즈가 성매매 여성들이나 마약중독자, 동성연애자 등 통상적인 집단을 넘어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



'생명을 위한 에이즈 행진'에 동참한 인도 볼리우드 스타 존 이브라힘. 이 캠페인은 뉴델리에서 시작돼 30여 명의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들이 총 6천 km를 행진하면서 에이즈의 존재와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출처=EPA)

고 있으며 도시(41%)보다 농촌(59%)에 더 많은 환자들이 분포돼 있다.

### 감염 경로와 문제점

인도에서는 에이즈가 대개 이성간의 섹스를 통해 감염되고 있다. 아삼 라이플 부대에서 지난 1992년에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32명이 에이즈로 사망했고 180여명이 치료 받고 있는데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의 100%가 현지 집창촌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에서 에이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국민의 40%가 문맹인 상태에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콘돔 등의 예방책이 거의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의 조사결과 10~25세 사이의 청소년들 중에 콘돔을 알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했고 특히 이들의 대다수도 사용법 자체를 모르거나 콘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도의 에이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피터 헤이우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은 에이즈 억제에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콘돔사용 등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많은 인도인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감염인의 대부분도 에이즈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힌두교의 전통상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에이즈에 부정적인 사회인식, 광범위한 이동학대, 에이즈 약값이 남아공 등 다른 국가보다 비싸다는 점도 인도에서 에이즈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7월 '인도의 어린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학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 정부가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에게 자행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에이즈 억제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인도 국립의료원(AIIMS)은 최근 인도인들이 체질적으로 다른 서양인들에 비해 에이즈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AIIMS는 200명의 HIV 감염인과 2천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HIV에 감염된 인도인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다른 서양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인도인들이 체질적으로 에이즈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HIV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에이즈 퇴치 활동

인도는 지난해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해 5천700만달러를 투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1월 인도의 25개 언론사가 주최한 '에이즈에 대한 언론사 지도자 회의'에서 "에이즈는 이제 단순한 공중보건을 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개발의 차원으로 비화됐다"면서 "에이즈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인도 경제 성장과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이즈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 등의 '사회적 백신'만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인도의 에이즈 예산은 환지당 연간 11센트로 미국의 65달러, 우간다의 1.81달러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0.5%로 남아공(2.3%)이나 태국(2.3%)보다 낮다며 굳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인도 정부의 우려는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4대의 특급열차가 에이즈 예방의 임무를 띠고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레드리본(에이즈의 국제적 표시)의 특급'으로 명명된 이들 열차는 인도에서 에이즈의 고퍼를 잡는다는 목표를 안고 3월 첫주에 인도 북부의 잠무와 남부의 카냐쿠마리, 서부의 자이살메르, 동부의 구와하티에서 일제히 출발했다.

국가에이즈통제기구(NACO)는 이를 위해 각각의 열차에 5개의 객차를 개조해 에이즈

검사가 가능한 의료장비와 전시실 등을 갖췄다.

열차는 낮에는 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지하는데 이때 객차에서는 에이즈 검사가



이뤄지고 가두에서는 에이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연극과 공연, 팸플릿 배포 등의 홍보활동이 이뤄진다. 또 일부 요원들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맡고 있다.

각 열차는 총 90회를 멈추고 매일 밤 평균 50~60km씩 달리면서 6개월간 6천km를 행군한 뒤 오는 9월 나그푸르에서 만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알 자로우와 알 클루, 라비 콜트레인 등 저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에이즈 퇴치 재즈 공연을 개최했다.

한편 남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州)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모든 술집에서 술병 1개당 콘돔 1개를 끼워주는 것이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월 UNAIDS의 후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는 '진인도 오토바이 열차' 대회가 열리기 직전 에이즈 문제가 나한 드라마에 출연했던 인도 봉사단체인 NCC의 단원들 모습이다. (사진 출처-EPA)